

正朝代 壯勇營의 경호학적 가치*

이 성 진**

〈요 약〉

상정조대 장용영(壯勇營)은 정조 즉위 후에 신변안전(身邊安全)과 왕권강화(王權強化)를 이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친위부대(親衛部隊)였다. 이는 경호학적 관점에서 볼 때 경호제도 발전과 호위(扈衛) 성과, 경호환경(警護環境) 조성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

장용영은 조선 후기의 호위제도의 변화 속에서 정조의 정치적 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제도로 거듭났다. 인조반정 이후에 역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호위청(扈衛廳)과 어영청(御營廳) 발족, 그리고 효종 때의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금군을 발전 시켰던 제도들은 임시변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장용영은 숙위소▶장용위▶장용영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거듭나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왕권강화와 민생안정에 대한 정치적 포부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친위 부대로 발전하였다. 장용영의 제도에는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이 내포되어 있다. 장용영 조직의 특성은 통합성, 전문성, 대규모성을 지닌 것으로서 현대경호의 특성을 드러냈다.

장용영의 군사훈련(軍事訓練)과 호위(扈衛)는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호위 작용에서도 정적인 신변보호(身邊保護)와 숙소경비(宿所警備)의 임무에 충실했으며, 이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폭넓은 활동의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태에도 충분히 대비하였다. 그리하여 잦은 능행과 대규모의 화성행차 및 병사들의 훈련 참관 등의 폭넓고 자유로운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장용영은 단순히 군사적 기능만을 발휘한 부대가 아니고 문화적 기능을 발휘하여 왕실과 백성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 왕의 행차(行次)에 참여하고 왕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왕과 병사가 하나가 된 장용영은 정조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부대로서의 위용(偉容)을 보여줌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국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경호문화행사(警護文化行事)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장용영(壯勇營), 신변안전(身邊安全), 왕권강화(王權強化), 친위부대(親衛部隊), 경호환경(警護環境)

* 이 논문은 2011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10047)

** 호서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목 차
I. 서 론 II. 경호제도의 발전과 장용영 III. 군사훈련과 호위의 성과 I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경호는 요인(VIP)의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작용이다(김두현, 2002: 25-30). 고대국가에서는 왕이나 집권자에 대한 신변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외적이나 내부의 정적(政敵)의 돌발적인 습격으로부터 지키는 일로서 처음에는 일반 군사 활동에 포함되었던 것이 국가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분업화 되고 이를 담당하는 요인들이 선발되는 등 특수부대로 조직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까지 경호의 개념이 분화되지 않았고 군사업무와 사법 행정에 혼입되어 이루어져 왔으나 고려태조 때 왕건의 중앙군(中央軍)이 있었고, 무인시대에는 도방(都房)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의흥군, 감사, 겸사복, 내금위 등의 수많은 명칭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현대적 의미의 경호, 경비에 대한 별도의 임무가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김두현, 2002: 70-118).

조선 문화의 극점에 이르렀던 정조대에 장용영(壯勇營)¹⁾은 규장각(奎章閣)과 함께

1) 장용영(壯勇營)은 1788년(정조 12)에 정조가 자신의 호위 강화를 위해 기존의 호위기구인 장용위(壯勇衛)를 확대·개편한 군영이었다. 설치초기에는 주로 국왕 호위와 궁궐 숙위(宿衛), 도성 수비 등을 담당하는 호위대(扈衛隊) 역할을 하였다. 정조 말년에 이르러서는 병력이나 재정 규모가 오군영

정조의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구로 꼽히고 있다. 규장각이 개혁정책의 산실로서의 문화정치의 공간이었다면 장용영은 개혁적인 문화정치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군영정책의 대표적 기구였다. 정조는 즉위하는 즉시 척족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의 정치세력을 구축하였는데, 왕실을 호위하고 왕권강화의 목적아래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숙위소▶장용위▶장용영의 과정을 거쳐 장용영을 핵심적인 군사기구로 발전시켰다. 이에 필자는 장용영이 현대경호학과 가장 가까운 역사적 실체인 것으로 판단되어 그간의 장용영에 대한 선학들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그 경호학적 가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장용영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대개 그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2000년대에 이르러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배우성(2001), 김준혁(2001) 등은 정조가 장용영의 설치 목적이 왕실 호위와 왕권의 강화에 있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호위(扈衛)”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현대경호의 개념과는 고대의 군사제도에 포함되어 경호의 조직과 작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나영일(2004), 김현일(2005) 등은 체육학적인 관점에서 장용영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편찬과 시사(試射)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장용영은 무예와 관련하여 연구하는 경향이였다. 그러다가 박현모(2005)는 군사학적 관점에서 정조의 군제개혁을 분석하여 정조가 오군영 중심의 군영체제의 비중을 낮추고 장용영의 비중을 높여 군령 체제를 일원화했음을 주장함으로써 군제개혁으로서의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봉학(2006)은 화성건설과 화성행차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조대의 화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였다. 한영우(2007)는 반차도(班次圖)를 따라 화성행차의 구체적인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김준혁(2007, 2008)은 장용영의 군제개혁 과정과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인 실체를 밝혀내는 데 공헌을 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와 장용영 연구는 보다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방섭(2010)은 장용영의 호위기구로서의 성격을 강조했으며, 이왕무(2010)는 장용영 내영의 구조와 기능을 살피는 가운데 병사들이 왕궁 건물을 사용했다는 등의 독립된 군영으로

(五軍營)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정조의 지속적 정책·재정적 후원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군령(軍令)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00년(정조 24)에 뜻하지 않은 병마로 인하여 정조가 승하 하자 1802년(순조 2)에 이르러 정조의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하여 혁파되고 말았다(이방섭, 2010: 1).

서의 친위병(親衛兵)의 특별한 대우와 그 규율의 엄격함을 파악하고 강조하여 현대 경호기관의 성격이 있었음을 암시(暗示)했다. 장필기(2010)는 정조대 장용영의 창설과 운영에서 정조왕권의 안정적 기초를 이룬 장용영의 먼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신변보호와 숙위체제를 정비하는 데 전력을 다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이어 이성진(2011)은 장용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왕 호위 기관으로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은 무예의 혁신이었는데 그것은 한국·중국·일본의 3국이 지녔던 전쟁무예의 종합적인 기술과 능력을 살린 무예도보통지의 편찬과 이의 실천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태완(2010)은 장용외영의 군사훈련과 화성부 성조도(華城府 城操圖)에 대한 연구로써 장용외영의 주요임무가 화성방위와 정조의 화성행차의 호위, 그리고 이를 위한 훈련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오늘날의 특수경호부대였음을 암시했다.

이상의 장용영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볼 때, 장용영은 “호위(扈衛)”, “숙위(宿衛)”라는 용어보다는 “경호”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현대 경호학적 성과를 중시하고 이를 경호학적인 체계에 비추어 그 가치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장용영이 왕권강화, 국왕호위, 민생안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도 중시한다. 다만 정조 당시에 무엇보다도 시급하였던 정조 자신의 신변안전을 지켜주는 군사적 작용 외에 왕과 신민이 일치하여 정조 자신이 품고 있는 개혁의지를 뒷받침하는 데 장용영이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살핍으로써 새로운 환경의 위기에 대처하는 역사적 과정과 화성행차의 실제적 현장에서 이룩한 장용영의 경호학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장용영이 그 이전의 호위체제와 어떻게 구별되며 현대 경호학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선후기의 호위체제의 변화를 역사적 과정과 정조 때에 와서 장용영이 설치될 때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쳐 장용영의 설치까지의 변화를 요약하는 것이 그 순서가 아닌가 한다. 그 다음에 장용영 설치의 의도가 정조의 개혁의지 실현을 뒷받침하는 양 날개의 하나였음을 확인하고 그 성과를 경호학적 가치로 묶어 보려고 한다.

첫째, 선행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장용영의 설치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간추려본

다. 여기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정조자신이 품고 있었던 개혁의지가 장용영 설치 운영에까지 제도적 발전으로 이어졌는가를 확인한다. 이어서 현대 경호의 제도, 조직, 작용, 환경에서 바라본 장용영의 경호학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관점으로 삼아 장용영의 경호학적 가치를 생각해 본다.

둘째, 장용영의 훈련과 호위의 관계를 살펴 훈련의 성과가 호위의 능력발전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 그 경호학적 가치를 확인한다.

셋째, 정조의 화성행차를 비롯한 거동에서 장용영이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그 맡은 업무를 확인한다. 화성행차의 반차도에 나타난 장용영 군사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행사 전체의 계획과 실전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그 기록을 확인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였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연구와 차별화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단순한 역사적, 행정적, 기능적, 문화적 사실로 보지 않고 기존의 개별 사실들을 당시의 상황을 추정하여 경호의 학문적 체계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II. 경호제도의 발전과 장용영

1. 제도의 의미와 개선의 의지

제도란 일반적으로 지속적이고도 공인된 사회생활의 구조를 가리키는 말이다. 세계 각국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닌 경호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호제도도 한국사회의 시대적 변천에 따라 경호제도가 있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용영은 조선 후기 정조 시대의 경호제도로서 앞 시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설치되고 운영되었던 역사적 창조물이다.

여기서 장용영 제도의 경호학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장용영 설치 운영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장용영의 설치와 운영은 장필기가 그의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의 역대 왕들이 왕위 계승과정에서 정통성 시비와 신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호위 기구에 관심이 많았던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깊다. 선조 때 시작된 동·서 당쟁은 임진왜란을 거치는 동안 지속되어 광해군에 이르러 정통성

시비는 당쟁의 근원이 되었다. 인조 반정 이후 역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정에 동원되었던 병사들로 구성된 호위청의 설치로부터 시작되어 어영군 발족이 있었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효종 때에는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금군을 발전시켜 2개부대로 나누어 좌우에서 어가를 호종하도록 하였다. 숙종대의 환국상황에서 경종을 이어 왕위에 오른 영조 또한 정통성에 시달렸다. 영조는 당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탕평정책을 폈지만 아들 사도세자가 당쟁의 희생물이 되고 세손으로 책봉된 정조가 가까스로 등극한 상황에서 조부 영조의 탕평책의 과업을 이어받아 의리탕평 정책을 지향하였다(장필기, 2010: 69).

장용영은 제왕교육을 철저히 받은 정조가 즉위 초부터 왕권의 안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변안전과 개혁정책을 펴는 뒷받침할 수 있는 친위체제 정비와 더불어 설치한 호위기구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장용영은 김두현(2007)이 경호학 개론에서 지적한 대로 한 군주의 면밀 주도한 계획과 실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완벽한 경지의 경호제도였다. 정조가 즉위한 이후 계속되는 현실적 위협 속에서 체험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던 것이다(김두현, 2007: 104-105).

정조는 즉위 초부터 왕권의 확립과 더불어 그 기반으로 정국안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정치적 반대세력과 긴장관계가 계속되었는데 예고된 대로 적대세력은 영조의 3년 상이 끝나기도 전에 암살을 기도하였던 사건이 일어났다. 1777년(정조 1)에 경희궁에 자객이 침입한 사건과 외척(홍상범)이 호위군과 공모하여 야간에 왕의 침전에 침입하였다. 정조는 이러한 암살사건을 처리하면서 궁궐의 경비와 신변의 안전을 위해 숙위소(宿衛所)를 설치하였으며, 궁궐의 수문을 통제하기 위해 감문절목(監門折木)을 제정하였다(이왕무, 2008: 190-194). 숙위소는 도성 전체와 궁궐 내부의 경비를 폭넓게 담당하는 경비기관이었고,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숙위소장의 직책을 맡은 홍국영은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무리를 자아냈다. 정조는 조정의 여론에 따라 홍국영을 방축하고 숙위소를 혁파하였다. 홍국영 사건을 통하여 정조는 신변의 위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숙위만으로 신변의 안전을 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척족을 멀리 하면서 군권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장용위를 설치하고 친위세력양성에 전력했다.²⁾ 장용위는 자신이 믿을 만한 책임자를 세워 정조 자신의 신변 안전과 서

2) 1782년 봄부터 훈련도감의 무예 출신 등 30명을 선발하여 명정전(明正殿)에 번을 세우던 것을 1785년에 장용위라 칭하면서 비롯되었다. 정조는 친위세력의 확보를 위해 기존의 무예청 소속 무예별감

민의 생활 안정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친위부대인 장용영으로 발전하였다.

숙위소 ▶ 장용위 ▶ 장용영의 발전과정은 기존의 호위 기관에 변화의 충격을 줄이면서 보다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개선되고 확대되어 갔다. 다른 부대에서 장용영으로 이속된 군병은 오군영의 정예군으로 장용영의 군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장필기, 1998: 166-170) 기존의 숙위기관이었던 숙위소와 장용위를 발전시켜 종합적인 호위 기관으로 군사력을 집중시켰다(유봉학, 1996, 128).

1786년(정조 10) 구선복 역모사건이 일어나자 정조는 관용을 베풀어 관련자 처벌을 확대하지 않았으나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단순히 궁중수비만을 전담하는 부대가 역모를 방지할 수 있는 군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김준혁, 2007: 41-47).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군사력을 장악해가던 외중에 흥국영의 사촌동생인 흥복영이 역모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연속하여 일어난 역모사건은 친위부대인 장용영의 창설을 가속화시켰다(차문섭, 1996: 81).

2. 장용영의 설치 계기와 발전

장용위가 1788년(정조 12)장용영(壯勇營)으로 확대 창설된 과정에서는 그 명칭뿐만 아니라 그 기능도 확대되었으며 계속하여 군역도 증가하였다.³⁾ 장용내영에서 장용외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용영은 정조가 가슴에 품었던 유교적 제왕의 학문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장용영의 설치와 운영은 그 때까지의 호위제도의 모순을 시정하고 직접 부딪혔던 조정운영의 현실에서 얻는 체험을 살려 만들고 실천한 실학의 최고 경지로서의 진정한 조선조 경호의 실현이었다.

김두현(2007)의 경호학개론에서는 경호조직을 제도와 분리하여 따로 장을 나누었

들을 신설한 장용위에 배속시켰다. 장용위는 오위체계를 받아들여 5개사에 25초를 두었다. 또한 병조판서의 지위를 격상시켜 군영을 통제하도록 했으며 국가재정의 절감을 이유로 군영의 통폐합을 기도하였다(김두현, 2005: 157-160).

3) 장용영은 척계광의 남군 제도를 본받아 5개 사(司)에 25개 초(哨)를 두었는데 중사(中司) 5개초는 서울에 있게 하고, 전사(前司) 5개초는 수원, 좌사(左司) 5개초는 고양, 파주, 안산, 과천, 시흥에 후사(後司) 5개초는 지평, 양근, 가평, 양주, 장단에 있게 했다. 장용영을 설치과정은 우선 50명의 장용위를 좌우 열 편제로 나누어 장용청으로 개편한 후 명칭도 장용영(壯勇營)으로 바꾸고 확대 창설하였다(1788년, 정조 12). 이와 같이 장용영 명칭 및 기능이 확대된 이후 계속하여 군역을 증가하다가 마침내 장용내외영제를 실시하면서 대폭적으로 군역을 증가하였다(1793년, 정조 17).

지만 여기서는 제도에 포함시켜 다루고자 한다. 조직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업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경호조직은 일반 조직과 비교해 볼 때 기동성, 계층성, 폐쇄성, 전문성, 대규모성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두현, 2002: 201).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장용영의 군제 편성을 살펴보면 기동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무예를 갖춘 장교와 병사들을 뽑았으며, 계층성, 폐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용위가 장용영으로 확대 개편된 1788년에 “기밀을 누설하면 군율로 처단할 것이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김준혁, 2006: 86).

장용영의 조직은 새로운 군제를 편성함에 있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마다 인원을 늘려가며 기존 요군영을 장용영으로 이관하는 형식을 취하여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장용내외영제를 실시하면서 점차 군병을 증가하여 군액을 증가하였다. 이는 신군창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무예에 출중한 자를 기존병영에서 뽑아 오기 위해서였다. 군영마다 상이한 편제와 분산된 지휘체제 아래 있던 군병을 장용영으로 이속시켜 하나로 통합하고 군집시킨 것은 정조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경장 정책에서 용정(戎政) 실현을 달성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김준혁, 2007: 65).

이리하여 장용영의 군제는 크게 마보군이 기병인 선기대의 좌, 중, 우 3초와 보군인 5사의 각초와 아병의 6초를 합한 34초와 각색표하군(各色標下軍)이 83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초의 선기대는 모두 345명으로 1초는 1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군은 615명이며 향군은 2,540명, 사후군(伺候軍)은 52명, 공장아병(工匠牙兵) 26명, 차중복마군 40명, 배봉아병(拜峯牙兵) 1245명, 고성아병(古城牙兵) 439명, 노양아병(露梁牙兵) 144명으로 장용영의 군사 총인원은 5,245명이 되었다(壯勇營大節目, 권1, 軍制). 기마병, 보병을 합한 경향(京鄕)의 군대가 3,450명이었는데 장용영의 군무를 책임진 장용영병방(壯勇營兵房)을 장용사(壯勇使)라 하고 다른 군영의 대장들과 같은 등급의 호칭을 부여했다. 특히 장용영 병장은 국왕의 특지에 의해 차출할 수 있게 했다(김준혁, 2008: 64-65).

장용영은 군사들을 선발함에 있어 용모와 풍채, 출신, 씨족의 유과 등을 참조하여 선발하였다. 이러한 선발기준은 장용내영에서 실시하던 것인데 차츰 장용외영에도 확대 실시하였다(김준혁, 2007: 73). 이러한 인사규칙은 경호조직의 전문성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장용영에는 도제조(都提調)와 제조(提調)를 두어 대신급으로 충원하였으며, 국왕

이 가장 신임하는 장용사 1명을 두어 군사를 거느리는 직책을 맡도록 하였다. 장용사는 포도대장이나 장수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이밖에도 종사관, 별장, 파총의 직위가 있어 직분에 따른 위계질서가 엄격히 지켰으며 예규를 만들어 서로 경어를 쓰며 직위가 낮은 자가 먼저 상관에게 절을 하도록 하는 등의 예절을 지키게 하였다(김준혁, 2007: 75) 이러한 예절 규칙은 경호조직의 계층성에 해당한다.

정조는 장용영 장관, 장교 군사를 선발할 때는 물론 복무 중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무예24기를 시험함으로써 무예를 숙련할 수 있게 하였다. 무예24기는 장용영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시험에 채택하였다. 장용외영 마군인 친군위는 행궁 호위 이외에는 기예를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되었다. 그것의 대부분은 마상기예에 관한 것들로 무예도보통지 단계에서 새롭게 강조된 무예들이다. 친군위는 좌우 열 장교 가운데 선발된 교관의 지도를 받아 마상기예의 기초를 익혔으며, 이는 장용외영 별관들의 시험과목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이로써 무예도보통지는 장용영의 장교 이하 군사들을 강화하는 무예서로 완전한 자리매김을 하였다(김현일, 2005: 25).

정조는 무예도보통지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통무예의 실체를 규명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통일된 무예를 정립했으며 태평시대의 유비무환으로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실학자들을 통하여 동양3국의 무예를 알 수 있게 했으며 이를 연구 분석하여 우리의 신체 체질조건에 맞게, 실제경험을 통하여 다시 수정 보완하는 자주정신과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우리민족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조상의 훌륭한 기와 혼이 배어있다(전영식, 2006: 35). 무예도보통지는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전문적인 지식과 무예기법의 창조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그 시대 출판물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Ⅲ. 군사 훈련과 호위의 성과

정조는 문(文)에 대한 무(武)의 차별이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위기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에서 문무가 하나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문치규장 무설장용(文治奎章 武設壯勇)’을 내세우면서 무를 문과 병행 발전시키려 한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왕이 자신을 지킬 힘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따름임을 깊이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정조는 장용

영 창설을 통해 강력한 군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기존 5군영을 축소하여 민생안정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장용영이 주축을 이루는 무의 행사인 화성행차에서 무(武)가 문(文)을 겸하는 의식이 행하여지는 것은 자연스런 분위기가 되었다.

1. 신변보호와 숙위체제

장용영의 훈련과 호위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함께 실시되었다. 즉위 초부터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신변보호와 숙위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였던 정조 자신이 밝혀온 의리탕평의 실현과정을 통하여 숙위체제를 정비하고 자신의 집권 기반이 약한 가운데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용위를 설치하여 친군위체제를 정비하면서 한편으로 화성성역화 공사와 맞물려 치밀하고도 은밀히 진행되었던 것이다(장필기, 2010: 71). 결국 장용영은 정조의 화성성역에서 현능원의 조성과 화성행궁을 호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조의 왕권강화를 호위로서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장용영이 내영과 외영으로 확대되면서 내영은 도성중심의 군영이 되고 외영은 화성중심의 군영이 된 것이다.

1795년의 화성행차 때 서울에서 진목정까지는 장용내영이 호위를 맡았고 진목정에 이르니 장용영 외영 소속 친군위 군인들이 어가를 맞이하여 호위를 맡았다. 화성행차의 호위는 이동간의 동적인 호위와 머물러 휴식을 취하거나 야간의 숙영 시에는 숙위의 임무로 돌아가는 등 호위와 숙위 등의 다양한 경호작용이 실행되었다. 이때에도 호위와 훈련은 겸하여 실시되었다. 8일간의 행차과정에서 넷째 날 장용영은 십팔기 군에게 돌아가며 훈련할 것을 명하고, 한 치의 게으름 없이 훈련에 임하도록 하였다(한영우, 2007: 125-126).

1795년 2월 9일 장용영고사(講註)에 성을 보호하는 성조(城櫛)훈련과 야조(夜櫛)훈련을 실시 한다는 계획을 정조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위의 중요성과 군사와 장수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해 9월 10일에 화성행궁 시에 장용외영과 어영청 군병들의 위치와 대열을 갖추어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용영을 중심으로 왕을 호위하고 다른 군영도 이를 보완하며 빈틈없는 시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용영은 국왕을 호위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진법과 무예시범을 통하여 장용영의 위엄을 들어냈으며, 외부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의 위치와 현황 등을 자세하게 보고하고 왕이 직접

성인(成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왕 자신과 왕실의 위엄을 또 한 번 과시했다(박기동, 윤대중, 2009: 107). 이러한 과정을 경호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용영은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친위부대로서 왕의 거동 시에 군사들의 위치까지 정하는 등 치밀한 사전경호의 준비를 완전히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2. 장용영의 무예훈련

장용영은 오군영의 군사 중 무예실력이 뛰어난 군사들을 흡수하여 최대의 군영으로 육성 발전시킨 것이기에 중앙중심의 방어를 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의 훈련도 기존의 5군영에 비하여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용영에 뽑힌 군사들은 오직 실력으로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장용영의 군사들은 기존의 군병들보다는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특수부대로서의 위용을 갖추어 나갔다. 이에 따라 각별한 예우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장용영의 기본훈련은 원기(元技)와 별기(別技)를 익혔다. 또 장용영의 정예기병인 선기대(善騎隊)는 좌초와 우초로 나뉘 좌초는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리며 적을 기만하는 마상재를 훈련하였고, 우초는 별기인 기창, 마상쌍검, 마상월도 등 실전에서 적의 예봉을 꺾는 기예를 훈련하였다. 이러한 훈련은 대부분 정조의 어명으로 편찬된 개인 전투무에서인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무예24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한자를 잘 모르는 군사들을 위하여 언해본을 따로 만들어 보급했기에 당시엔 누구나 무예도보통지를 옆구리에 끼고 수련을 했을 정도이다.

보군(步軍)은 능기군(能技軍)과 십팔기군(十八技軍)으로 구분했는데, 일 년에 4번 시험을 봐서 실력이 떨어지고 게으른 군사들은 십팔기군으로 강등시키고 성적이 우수한자는 능기군으로 뽑았다. 그리고 선발된 능기군중에서도 무예실력이 뛰어난 군사에게는 특별히 번직(番直)을 줄여주고, 급료를 높여주며 실력으로 승부하는 곳이 장용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 당시 그들의 군사훈련을 살펴보면 거의 매일같이 군사훈련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매일 한차례 단체 진법훈련을 했고, 사흘마다 열두 명 단위인 대(隊)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활, 조총, 창검 무예를 익혀야 했다. 또 부대를 지휘하는 초관급 이상의 장교들은 단체로 모여 한 달에 세 번씩 활쏘기 시험을 보아야 했으며, 장교인 지구관이나 교관들은 한 달에 두 번씩 진법을 강론하게 했다(최형국, 2007: 196-197).

정조는 장용영의 훈련에 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훈련장에 직접 참석하여 군사들이 정교한 군사훈련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장용영의 군사력은 날로 강화되었다.

3. 화성행차의 군사훈련과 호위

1795년의 화성행차의 주역은 장용영이었듯이 각종 능행이나 거동 시에도 장용영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였다. 1795년의 화성행차가 능행 중 가장 대표적인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이는 정조의 모친의 회갑연을 겹쳤기에 그 규모나 성대함도 유례가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 무렵은 정조의 즉위 이래 이제까지 그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개혁에 대한 꿈이 실현되고 개혁의 의지가 현실적으로 모두의 눈에 보이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화성의 성역화 공사도 예상외로 빨리 진행되었고 상대적으로 이 시기는 정조 자신의 신변에 미치는 위협도 성대한 행사 속에 묻혀 사라지는 순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정조와 그를 따르는 신료는 물론이요, 백성에 이르기까지 경축의 분위기가 충만하였던 것은 그 기록물로 남아있는 반차도(班次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하는 그 기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반차도이다. 이 반차도는 화려하고 장엄하다. 어떻게 보면 큰 구경거리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긴 18세기 왕조문화의 자신감과 자유분방함이 넘쳐흐르고 있다(한영우, 2007: 30)는 것으로 보아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분위기 속에 경호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1795년(정조 19)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에 의하면, 화산 행차에는 협연군 100명이 유영(留營)인 어영청에서 선발되었다. 가전별초와 후상군은 수가부대인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 담당하였고, 선상군은 수원의 장용영 외영에서 관장하였다. 이와 같이 국왕 호위병종은 대체로 협연군은 100명에서 1000명 내외의 군병이 동원되었고, 가전별초와 가후금군은 50명 내외, 그리고 선상군과 후상군은 최소 1000명에서 최대 4,5천명의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었다(신명호, 2001: 131).

화성행차가 치러진 뒤 원행을묘정리의궤를 편찬하여 남긴 반차도를 보면 왕조문화의 절정기에 이른 정조시대의 자신에 넘친 기상과 화려하고도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넘쳐흐른다. 선두에 인기를 앞세우고 북을 신나게 두드리는 기마병을 뒤이어 주작, 현무, 백호, 청룡 등의 화려한 깃발부대만도 238명이었고 말을 탄 채 악기를 연주

하는 악대도 115명이나 되었다하니 그 전체 규모를 상상할 수 있다. 조정의 요인들과 주요직책을 맡은 신하들과 호위를 맡은 수많은 장군과 병사에 이르기까지 질서 정연하게 악대에 맞추어 행군하는 장관은 연도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단순한 구경거리 이상의 행사로서 조선 신민들의 긍지를 심어줄 만하였음을 상상할 수 있다(한영우, 2007: 12-31)고 했다.

장용영은 왕의 시위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진법과 무예시범을 통한 장용영의 위엄을 과시했다. 외부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의 위치와 현황 등을 자세하게 보고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과 왕실의 위엄을 과시했다. 따라서 경호사적 측면에서는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사병적인 친위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의 거동 시에 군병들의 위치까지 정하는 등 현대적의미로 치밀한 사전경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기동, 윤대중, 2009: 109). 그리고 정조는 수시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략적인 요충지를 보강하는 등 수도권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김지영, 2005: 5)고 보았다.

한우영(2007)의 “반차도(班次圖)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에 동원된 인원과 규모는 방대함을 반차도에 남겨놓았다. 말을 탄 채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만 해도 115명이요, 깃발부대가 238명이 등장하는 각종 깃발부대의 모습도 장관이요, 배일을 쓰고 말을 타고 가는 나인들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행렬에 참가한 인물의 직책과 이름을 표시하고 있다. 정조는 경호의 제도와 조직을 중시하는 반면 그 직책을 담당하는 인물을 중시하였다. 경호의 임무를 책임 있게 담당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김두현, 2002: 266). 화성행차 행렬에는 조정의 요인들이 총망라하였고 서열에 따라 그 위엄과 호위 또한 철저하다. 경호 담당자 간의 연락과 협조가 그만큼 중요함을 이미 잘 실현해 주고 있다.

훈련대장의 행렬과 금군별장의 행렬은 위엄을 보이면서 행렬의 중간에 가까이 올수록 왕을 호위하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중앙관리들과 행렬이 보이며 삼엄한 호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어느덧 행렬의 중앙에 어보마가 보이는데 여기에는 인물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군데군데 좌마가 있어 왕의 위치가 수시로 변하는 것도 현대경호학적으로 보면 이는 지극히 존엄한 왕의 존재에 대한 금기사항으로서 보안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경호학에서도 보안은 매우 중요한 경호 작용임을 말하고 있다(김두현, 2002: 268).

화성행차에서 장용영을 위시한 무관들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 장용

영의 위치가 중간 행렬 이후 점차 보이면서 병졸들은 대다수 모습이 생략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후 활동과 아울러 경계 경비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장용대장 서유대의 위치는 후미와 중간 사이에 마상행보를 하면서 모든 사항을 예의 주시하며 총괄하고 있는 모습이 주위를 삼엄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반행렬 이후에 배치된 장용영 장교와 병사들의 수가 많다. 장용영은 왕의 친위 부대로서 협련군, 가전별초, 가후금군 이었다. 그 임무가 막중함을 반차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협련군은 국왕이 타고 있는 말이나 가마의 좌우에서 옹위하여 호위하는 최측근의 친 위병이다. 가전별초는 정면, 가후금군은 후면을 담당하는 친 위병 이었다. 따라서 이들 세기병은 국왕의 수레를 전후좌우에서 호위하는 친위군이였다(經國大典). 화성능행도 중 장용영 선기장의 모습은 정조가 억울하게 뒤주 속에 갇혀 승하한 아버지 사도세자를 찾아가는 길에는 친위군 장용영이 함께 했다. 정조도 스스로 황금갑주를 입고 능행길에 올랐기에 장용영의 사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장용영의 선기대는 조선최고의 기병대로 불렸다(최형국, 2007: 197). 또한, 장용영 제조 이명식의 위풍당당한 모습도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 그는 용호영에서 차출한 가후금군 50명을 이끌고 후미를 장식하고 있으며 표기를 앞세우고 그 행렬에 합류한 병조판서 심환지의 모습도 보인다.

18세기 중반부터 국왕 거동의 통일성과 왕실의 위엄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어가행렬의 재편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영조와 정조대를 거치면서 국왕행차에서 빛(光)은 새로운 요소로 등장 되었다. 이때 국왕의 거동이 국왕을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한 신변보호라는 부분을 보여주었다. 군문의 오색등은 밤 거동 길을 밝히면서 군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반차도를 통해 어가행렬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요소가 행렬에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향(香)이었다. 도로의 한가운데를 은은한 왕실의 향기로 채우며 국왕의 행차가 지나갈 때 국왕은 더욱 특별한 존재로 부각될 수 있었다(김지영, 2005: 346-347). 가마나 의장은 제작당시에 왕실고유의 향으로 채워졌으며 국왕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부용향(芙蓉香)의 냄새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국왕의 권력을 상징하며 민간에 전파되었다.

IV. 결 론

정조 즉위 초에 고심하였던 신변안전과 왕권강화 문제는 친위부대인 장용영의 설치로 완성되었다. 이는 경호학적 관점에서 볼 때 경호제도 발전을 가져왔고 그 훈련과 호위 성과를 통하여 경호학적 가치를 높여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용영은 조선 후기의 시위제도의 변화 속에서 정조의 정치적 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제도로 거듭났다. 인조반정 이후에 역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호위청(扈衛廳)과 어영군(御營廳) 발족, 그리고 효종 때의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금군을 발전시켰던 제도들은 다소 임시변통적인 성격이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장용영은 숙위소 ▶ 장용위 ▶ 장용영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거듭나 정조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왕권강화와 민생안정에 대한 정치적 포부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친위부대로 발전하였다. 장용영의 제도에는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이 내포되어 있다. 장용영 조직의 특성은 통합성, 전문성, 대규모성을 지닌 것으로서 현대경호의 특성을 드러냈다.

장용영의 훈련과 호위는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훈련 중에도 호위 작용이 포함되었으며 동적인 이동 간의 호위에서도 정적인 신변보호와 숙소경비의 임무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폭넓은 활동의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태에도 충분히 대비하였다. 그리하여 잦은 능행과 대규모의 화성행차 및 병사들의 훈련 참관 등의 폭넓고 자유로운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장용내외영의 설치로 확대된 이후에는 내영이 서울을 중심한 군영이 되었고 외영은 화성을 중심한 군영이 되었다. 1795년의 화성행차는 장용내영과 외영이 각기 책임 구역의 호위를 담당하였고 이동간의 동적인 호위와 휴식을 취하거나 야간의 숙영 시에는 숙위의 임무로 돌아가는 등 호위와 숙위 등의 다양한 경호작용이 실행되었다.

그리고 행차의 일정에서 장용영 훈련도 시행하였다. 정조 스스로도 장용영 군사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간훈련인 성조(城操)와 야간훈련인 야조(夜操)를 실시 한다는 계획을 정조에게 보고하는 내용에는 시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으로 군사와 장수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장용영의 군사들은 기존의 군병들보다는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특수부대로서의 위용을

갖추어 나갔다.

장용영의 화성행차는 정조 자신이 제왕으로서의 꿈의 실현을 보여주는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정조는 화성행차의 과정을 반차도에 남겨놓았다. 훈련대장의 행렬과 금군별장의 행렬은 위엄을 보이면서 행렬의 중간에 가까이 올수록 왕을 호위하고 있으며 군데군데 좌마가 있어 왕의 위치가 수시로 변하는 것도 현대경호학적으로 보면 이는 지극히 존엄한 왕의 존재에 대한 금기사항으로서 보안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경호학에서도 보안은 매우 중요한 경호작용임을 말하고 있다.

화성행차에서 장용영을 위시한 무관들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 장용영의 위치가 중간 행렬 이후 점차 보이면서 병졸들은 대다수 모습이 생략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척후 활동과 아울러 경계 경비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반행렬 이후에 배치된 장용영 장교와 병사들의 수가 많다. 억울하게 승하한 아버지 사도세자를 찾아가는 길에는 친위군 장용영이 함께 했다. 정조도 스스로 황금갑주를 입고 능행길에 올랐기에 장용영의 사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넷째 날인 이날의 가장 절정은 왕이 직접 참여하는 주야간의 훈련이었다.

현대경호에 전통계승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용영은 정조의 르네상스정신에 의하여 탄생한 제도였다. 이러한 르네상스정신은 15세기의 세종 때에 빛났고 그 300년 후 18세기의 정조 때에 빛났다. 우리는 정조 때로부터 또 다시 300년 후인 21세기의 주인공으로서 경호학에서도 르네상스 정신을 발휘하여 옛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현 (2002). **경호학개론**. 서울: 백산출판사.
- 김두현 (2007). **경호학개론**. 서울: 쟁기.
- 김준혁 (2005). 正祖代 壯勇衛 설치의 政治的 推移. **史學研究**, 78, 147-188.
- 김준혁 (2006). 정조대 군제개혁론과 수총양영 혁파. **중앙사론**, 23, 181-210.
- 김준혁 (2007). **조선 정조대 장용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준혁 (2008). 정조대 정치체제 운영과 개혁정책. **동양정치사상사**, 7(2), 59-84.
- 김지영 (2005).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의궤반차도와 거동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호 (2006). **한국경호발달사**. 서울: 백산출판사.
- 김현일 (2005). 『**武藝圖譜通志**』에 나타난 권법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동, 윤대중 (2009). 정조시대의 장용영을 통해본 체육 무예(경호)사적 의미와 가치. **한국체육사학회지**, 14(2), 101-109.
- 박준석 (2006). **경호학의 이해**. 서울: 백산출판사.
- 송찬섭 (1998). 正祖代 壯勇營毅의 設置와 運營. **韓國文化**, 24, 243-280.
- 신명호 (2001). 조선후기 국왕 행행시 국정운영체계. **朝鮮時代史學報**, 17, 111-139.
- 유봉학 (1996). **꿈의 문화유산 화성**. 서울: 신구문화사.
- 유봉학 (2009). **개혁과 갈등의 시대**. 서울: 신구문화사.
- 윤국일 (2005). **경국대전**. 서울: 신선원.
- 이방섭 (2010). **조선 정조대 장용영의 운영 실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진, 김의영, 이종환, 김인재 (2011). 조선시대 정조대 장용영의 무예. **대한무도학회지**, 13(1), 187-198.
- 이왕무 (2008).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형희 (2001). 『**武藝圖譜通志**』와 그 諺解本. **진단학보**, 91, 445-456.
- 장필기 (1998). 정조대의 화성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개편. **서울학연구총서**, 10, 147-197.
- 전영식 (2006). **무예도보통지의 육기검법**. 서울: 대경북스.

차문섭 (1996). 조선시대 군사기관 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최형국 (2007). 조선시대 최고의 특수부대 '장용영'. 인물과 사상, 192-203.

한영우 (1999).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서울: 효형출판.

한영우 (2007).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 효형출판.

【Abstract】

King Jeongjo's *Jangyongyoung* and its Value in Terms of Security

Lee, Sung-Jin

Jangyongyoung was a royal guard in the King Jeongjo Period. The guard was established after the inauguration of King Jeongjo to protect the king and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In terms of security study, it has high value in that it gives insights to the development of security system and its achievements and new role of supporting king's cultural events.

Jangyongyoung was a formal guard established to achieve king's political reform. After the King Injo restoration, there sprouted many security guards, including *Howicheong*, *Eoyounggun*, and *Gemgun*. Those were all makeshift systems. But Jangyongyoung grew as a standing and futurist system as it went through some different names, *Sukwiso*, *Jangyongwi*, and finally Jangyongyoung. It served to protect the legitimacy of King's succession, to strengthen royal authority, and to bring stability to people's lives. Jangyongyoung had an efficient organization and operation. It also ha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ecurity, integration, professionalism and size.

In Jangyongyoung, military training and security were not separate. They protected king from dangers and guarded king's bed, and they trained themselves to deal with unforeseen occurrences. By doing so, they could support king's many activities, including visit to royal tombs, touring of Hwaseong Fortress, and watching military training.

Jangyongyoung not only served as a military guard but also it had a cultural function. They made it possible that king and people met in the king's procession. Jangyongyoung supported Jeongjo's political reform, and as a royal guard it enhanced the authority of royal family and exemplified a new security guard by supporting king's cultural events where king, servants and people

could become one.

Key Words : Jangyongyoung, Protecting of the King,
Strengthening of Royal Authority, Royal Guard,
Security Conditions